

현장의 소리

간호사를 꿈꾸는 고등학생 위한 체험교실

“선생님은 왜 간호사가 되신 거예요?”
 학생들은 뭐가 그렇게 적을 게 많고 궁금한 게 많은지 연신 메모를 하며 질문을 한다. 간호사들은 학생들의 엉뚱한 질문에도 귀찮아 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웃으며 답변을 해준다.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오늘 체험한 하루가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간호사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관계에서 갈등은 없는지, 사회적 이슈인 괴롭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등의 질문이 쏟아진다.

고등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고, 이런 점을 걱정하는구나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동료 간호사들을 생각하게 된다.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짧은 시간 동안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보람과 즐거움, 어려움 등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고민해 멋진 전문직 간호사가 되는 길에 함께 해주길 소망해 본다.



문정은 김혜 the큰병원 간호차장

남북한 간호교육 교류 전략 논의
통일간호학회-통일간호포럼 학술대회

제3회 통일간호 학술대회가 '남북한 간호교육 교류를 위한 전략과 과제' 주제로 12월 7일 열렸다.



통일간호학회(회장 강윤희)가 주최하고, 통일간호포럼(대표 신경림)이 주관했다.

이날 개회사를 한 통일간호학회 강윤희 회장은 “통일간호학회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간호학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의 아래 2017년 창립했으며, 올해 제3회 학술대회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학회에서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올해는 국제간호표준에 근거한 북한 간호원 교육과정 개발”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한편 이날 통일간호학회 총회가 함께 열렸으며, 2020년 사업 계획을 정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북한 보건의료의 어제와 오늘, 내일(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에서 경험한 간호교육 및 실무현황(최유진 탐북간호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준비과정(김경민 통일교육문화원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통일간호학회에서 ‘국제간호표준에 근거한 북한 간호원 교육과정 개발’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한편 이날 통일간호학회 총회가 함께 열렸으며, 2020년 사업 계획을 정했다.

경남적십자사 보건강사봉사회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보건강사봉사회(회장 강경혜)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건강상담, 해외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지사 보건강사봉사회는 적십자 이념을 실천하는 경남지역의 보건교사와 병원 간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적십자 봉사자 조기에 간호사 취업을 함께 돕고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매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주최, 경남지사 보건강사봉사회 주관으로 ‘노인생활 건강제조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1월 제24회 경연대회를 개최해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을 되찾아드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경남지사 보건강사봉사회는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며 아름다운 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기자 jslee@

사별 유족 위한 도움서 발간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사별을 겪은 유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을 위한 도움서’(유족도움서)를 발간했다.

유족도움서는 유족의 애도 과정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정보 △유족이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 어려움 △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슬픔의 차이 △슬픔에 영향

을 주는 요소 등의 전문적인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유족도움서는 유족이 일상생활에서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로 제작됐다. 자살 유족을 위한 홈페이지 ‘따뜻한 작별(www.warmdays.c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중앙심리부검센터(02-555-1095)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숙 기자 jslee@

2023년까지 에이즈 퇴치 목표

상담 의료기관 확대 및 상담간호사 확충

유튜브·웹툰 등 활용... 대상자 맞춤형 교육과 홍보

2023년까지 에이즈 퇴치를 목표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밝혔다.

이는 제2차 감염병예방관리기본계획(2018~2022) 내 후천성면역결핍증 정책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후 감염병예방법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해 확정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HIV/AIDS 생존감염인은 1만2991명, 신규 발생은 1206명이다. HIV 감염률은 10만명 당 2.0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6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사전예방·조기 발견·치료지원의 보다 강화된 대책을 통해 에이즈 퇴치를 가속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예방관리대책은 ‘신규 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 비전 아래 마련됐다.

2023년(1단계)까지 ‘감염인지 90%, 치료를 90%, 치료효과 90%’, 2030년(2단계)까지 ‘감염인지 95%, 치료를 95%, 치료효과 95%’를 목표로 설정했다.

첫째, 조기발견 및 조기진단 체계를 강화한다. HIV 노출 후 검사 권고시기를 단축(12주→4주)해 조기에 감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조기진단 및 감염 인지를 향상을 위해 보건소 HIV 간이검사 체계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한다. 감염취약집단(고위험군) 검진을 향상을

위해 에이즈예방센터를 현재 5개에서 2023년 7개로 늘린다.

둘째,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강화한다.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26개에서 2023년 30개로 확대한다. 감염인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상담간호사를 현재 35명에서 2020년 50명으로 늘린다. 생존감염인 및 장기요양시설 요구 증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요양·돌봄·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 및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

HIV/AIDS 완치제 개발 및 내성극복을 위한 HIV 저장소 마커 발굴 등 신개념 HIV 치료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국내 HIV 질병 발생요인 분석을 위해 고품질의 역학·임상자료 및 생물자원 지속적 확보, 표준화된 코호트 자원 분양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연구개발 및 예방치료를 강화한다. HIV/AIDS 완치제 개발 및 내성극복을 위한 HIV 저장소 마커 발굴 등 신개념 HIV 치료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국내 HIV 질병 발생요인 분석을 위해 고품질의 역학·임상자료 및 생물자원 지속적 확보, 표준화된 코호트 자원 분양체계를 마련한다.

넷째, 대국민·대상군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에이즈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소통사업을 강화한다. 중앙부처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감염경로 등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에이즈 지식 전달, 인기 웹툰을 활용한 세대별 에이즈 관심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차별과 편견 해소를 핵심메시지로 하는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정규숙·최유주 기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 12개 기관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서울·대구·수원·삼척·청주·충주·홍성·군산·포항·안동·김천·서귀포의료원 12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34개) 및 적십자병원(5개)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했다. 영주적십자병원(2018년 신축)은 시범평가 대상이다.

운영평가는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산자료, 결산서 등 서류조사, 전문가의 설문조사와 현지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전체 평균은 76.1점으로 전년 대비 0.9점 상승했다. 등급별로는 A등급(80점 이상) 12개, B등급(70점 이상) 20개, C등급(60점 이상) 7개였다. D등급(60점 미만)은 없었다.

2006년 첫 평가 이후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6년 61.3점, 2009년 70.3점, 2015년 72.1점, 2017년 75.3점, 2018년 75.2점이었었다.

올해 평가결과 우수기관 1위는 홍성의료원, 2위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3위는 포항의료원이 차지했다. 개선기관으로 서귀포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선정됐으며, 개선기관은 2018년 B등급에서 2019년 A등급으로 상승한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과 효과적 전달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고예산 배분 시 차등 지원하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기자 jslee@

보건교사

김희영 · 오정화 교수의 소문난 명강의!!



김희영 교수
지역사회간호
학교보건
정신간호



오정화 교수
성인간호
아동간호
모성간호

1~6월
기본이론 + 기출문제

7~8월
영역별 문제풀이

10월
동형모의고사

- 간호직공무원, 간호사국가고사에서 검증완료된 전문교수진
- 최신 경향 집중 분석, 제대로 된 강의준비
- 10년 이상의 현장강의 경력 [현재 진행중]
- 경쟁교재 및 강의의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 수강료



보건교사 스티커
카페 바로가기

db 대방열림고시학원 상담문의 02-823-4700

보건교사 최단기 합격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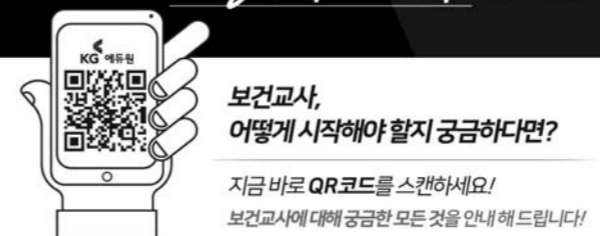


예비 보건 선생님, 힘내세요!
열심히 한 해를 보낸 만큼
노력의 결실을 맺길 응원합니다.

전공보건
임수진

수험기간 1년 이하 합격자 비율 57%

'19학년도 서울 신규 과반수 이상 배출!



보건교사,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보건교사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KG 에듀원 교원임용 회소/샘플러스 ssamplus.com 문의 1544-0678

2021학년도
보건임용 완벽대비는 박문각!
보건교사를 위한 새로운 결음!



오상준 보건교사
서울대 간호학과 졸업 / 서울대 간호학 박사과정
前)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
前) KOICA PROJECT MANAGER

젊은 감각으로
핵심을 꿰뚫는다!

오상준 보건 2021대비 연간패키지 판매 예정/1-2월 강의 판매 예정!



박문각 보건교사
12월 신규 입성 예정!!

노랑진 합격 선배들이 믿고 듣는 강사!

NEW

#합격자다수배출! #단기합격신화!
#합격생들이 추천 #역시박문각임용

2021학년도 보건교사 임용 대비
교육학 논술 5인 5색
2021임용대비 박문각 최강 교수진들과 함께라면
합격은 문제없다!

2021대비 연간패키지 1-2월 기본이론반 | 다양한 혜택 제공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된 1-2월 기본이론반 | 기초부터 튼튼히 | 학원 021816-2030 온라인 0213489-9500

PMG 박문각임용 www.pmg.co.kr
학원 021816-2030 온라인 0213489-9500